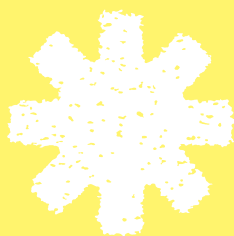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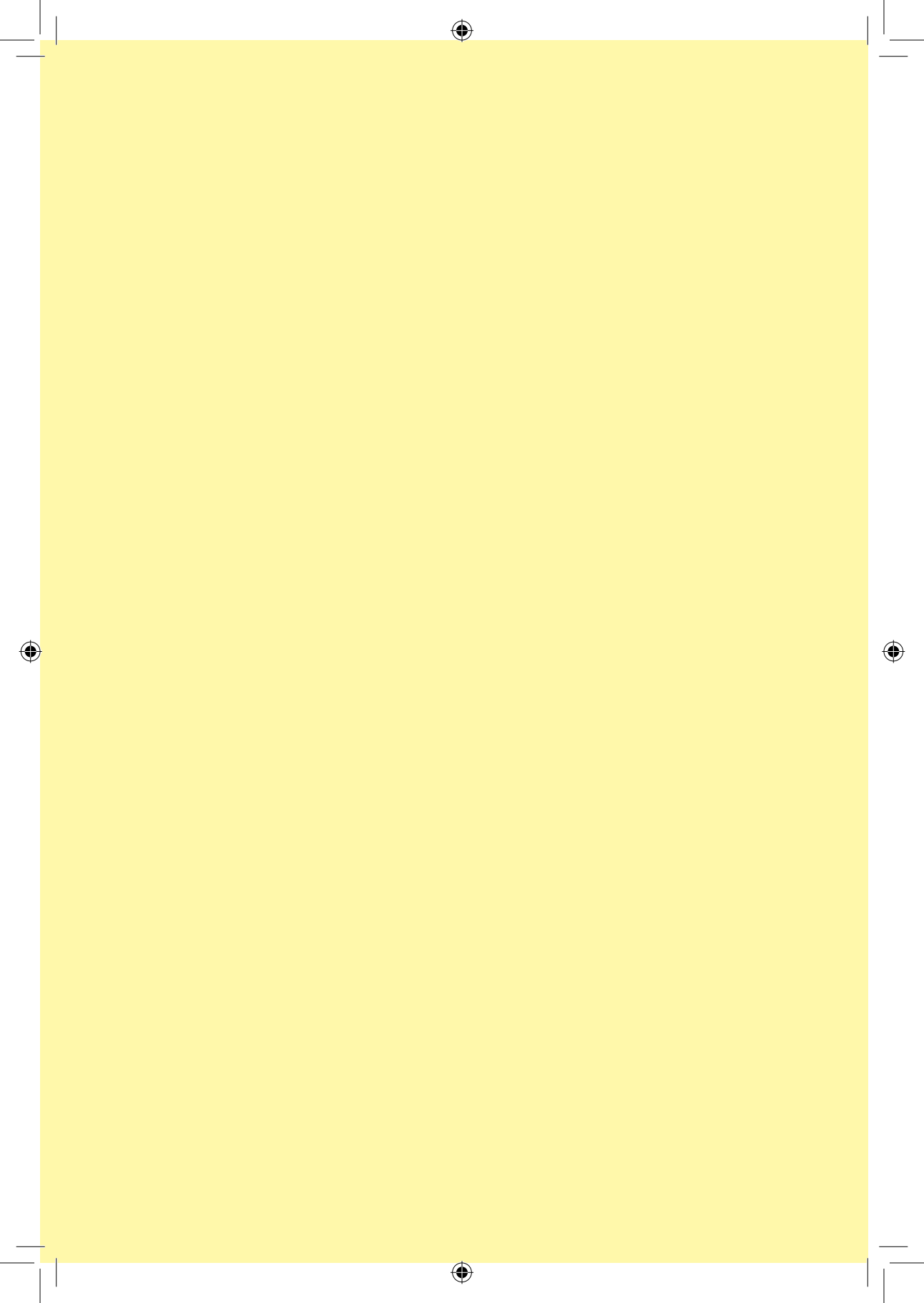


예술로 흔적남기기

2021





목차

‘예술로 흔적남기기’ 기획의도	3
프로그램 기획과정	4
〈음악으로 흔적남기기〉 쓰담쓰담SEOUL	6
〈도예로 흔적남기기〉 헨세라믹	10
‘예술로 흔적남기기’ 네 번의 만남에 대한 기록	15
노원어린이극장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회고록	21

2021 노원어린이극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술로 흔적남기기>는

노원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노원어린이극장에서
실행·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 사업
프로그램입니다.

노원어린이극장은 극장의 활용도를 다채롭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코로나 블루시대’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 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심있는
지역예술가를 선정하여 ‘예술로 흔적남기기’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예술로 흔적남기기’ 기획의도

연출가, 미술감독, 기록자, 주최기관 담당자가 본 프로그램의 과정에 투입되어 관찰자와 조력자의 역할을 해내어 기록집이 완성 되었습니다.

‘예술로 흔적남기기’ 프로그램은 지역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만든 노원어린이극장 고유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4가족(35명)이 4회차 동안 참여 했습니다.

‘예술로 흔적남기기’를 시작으로 노원어린이극장만의 고유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창작지원 및 제작공연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움직일 것입니다.

<예술로 흔적남기기> 기획과정

1 9.8.수 ~ 9.30.목 공모접수, 심사 및 발표

1차 서류심사(9.27), 2차 인터뷰 심사(9.29)를
거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하고 간담회 진행



2 10.23.토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방문

2021 예술로 상상극장 배리어프리
어린이공연 제작워크숍 관람



3 10.30.토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방문

지역을 품은 가족 소통 프로젝트
'회복을 위한 7가지 조각' 결과전시회 관람



11.2.화 연출님과의 좌담 1차

11.3.수 연출님과의 좌담 2차



예술교육 1차 프로그래밍



예술교육 2차 프로그래밍



6 11. 8.월 ~ 11.24.수
참여자모집 및 프로그램
보완 및 설계, 준비



음악으로 흔적남기기

with **쓰담쓰담 Seoul**

마음을 비우고, 소리를 따르고,
그림으로 소리를 채우고,
그리고 듣는다. 우리모두, 함께...

코로나 이후. 집안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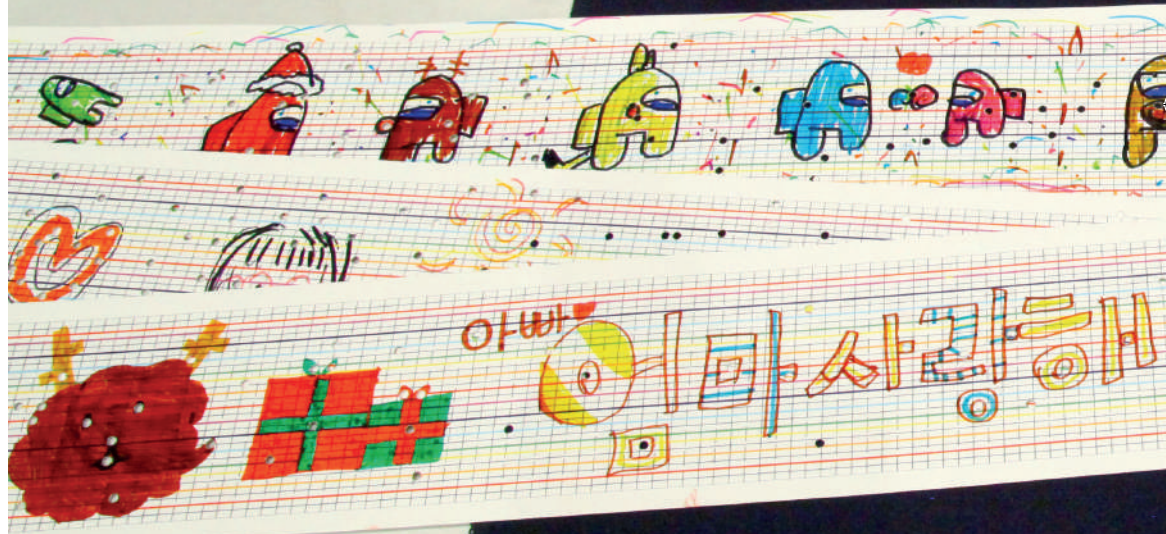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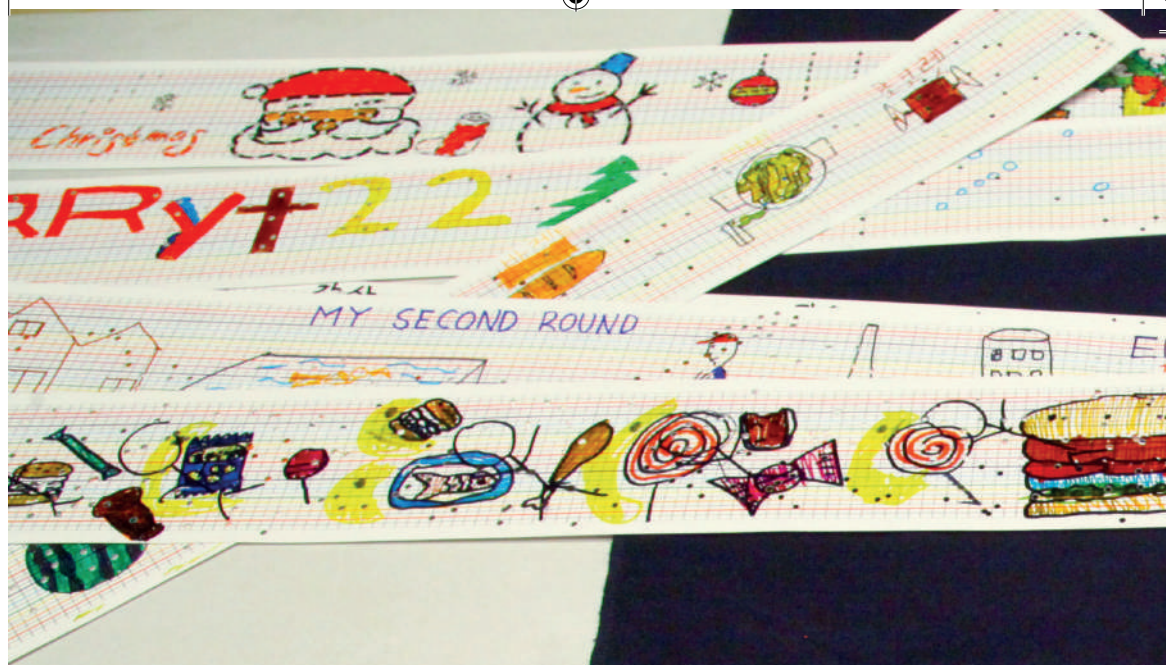
저는 7살 딸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놀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아이가 “놀아줘!!”
라고 하는데 막막할때가 많아지고 나중에 급기야는 “알아서
놀아라.” 하고 슬쩍 피하기도 하고 막상 놀자니 어색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고민에서 프로그램이 설계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우리끼리 같이 놀 수 있는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 을 노원어린이극장에서 4차시 동안
문화예술교육 음악분야로 풀어보았습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추억으로 흔적이 남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대표기획자	이선미
주강사	박은정 (아이리더교육연구소)
보조강사	최경숙 우가희
참여자	8~9세 아동이 포함된 가족1인



첫 번째 흔적남기기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신나게 놀아봅니다.

1교시 O.T(예술로 흔적남기기 소개)

2교시 아이스브레이킹(몸을 많이 움직여
마음열기)

(뮤직브레이크)

팀(엄마와 아이)소개와 2개의 주사위를

나눠 굴려 질문이나 미션을 수행.

(음악칠교놀이)

칠교(유격판)의 이해와 대형색종이 음악칠교

쪼개어 만들기 팀칠교작품 완성하기

(음표(박자)꽃이 피었습니다)

박자 수만큼 신체를 들어올리고 멈춘다.

(아리랑손치기)

1박과 2박 손유희 활동

두 번째 흔적남기기



마음따라 소리따라 쳐봅니다.

1교시 악기박물관 (다양한 나라의 악기탐색)

두들기고 칠 수 있는 악기를 찾아 빙고게임.

내가 고른 악기로 타이프라이터 종소리

맞춰 치기

라이온킹OST 타악기연주

(공치기연주)

팀이 찾은 악기와 연주해보고 싶은 악기를

골라 리더친구의 리듬을 맞춰 연주하며 치기

2교시 사물놀이 딱지치기(악기와 자연이야기)

(사물놀이 딱지만들기)

딱지 메모리놀이 및 원밖으로 밀어내기

(어른도 아이처럼)

세 번째 흔적남기기



뚫기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소리로
만들어봅니다.

1교시 오르골 아트홀(Hole)

오르골에 대한 이해 및 오르골 악보에
그림그리기

(핀칭으로 뮤직홀 Hole 만들기)

2교시 오르골 아트 주제설정 및 발표

연주 녹음작업

네 번째 흔적남기기



잇기

소리로 마음을 이어봅니다

1교시 칼림바체험

칼림바 악기를 활용한 마음소리 듣기

아프리카 문화 이해 및 칼림바 이야기

내 마음대로 즉흥연주 및 배워보기

2교시 아트오르골연주&즉석공연

도예로 흔적남기기

with **헨세라믹**

가족, 성장, 시간의
흐름을 도예로 남겨본다.
나와 내가족이 함께.....

도자기가 완성되는 실질적인 과정을 알아보고
우리의 삶과 흐름이 같음을 이해하며 느끼고 표현해 본다.
무에서 유가 되는 과정을 도자기라는 소재를 이용해 느끼고
가족의 탄생 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생각해보고
기록한다.
참여자들과 함께 만든 흙조각에 글과 그림으로 마음을 담고
모아서 하나의 작품을 탄생 시킨다.

대표기획자	안혜은
주강사	안혜은
보조강사	조서운
참여자	6~7세 아동이 포함된 가족



흙이랑 친해지기



- 도자기가 완성되는 과정을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 직접 느껴본다.
- 마른흙(가루)에 물을 조금씩 넣어 찰흙을 만들고 익숙해지면 물을 더 넣어 진흙을 만든다.
- 가족만의 팀명을 만들고 찰흙으로 간판을 만들어 본다.

흙이랑 장난치기



- 슬립(진흙)을 석고판에 원하는 모양으로 붓고 물감이나 도구를 이용해 꾸며준다.
- 굳은 후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자르고 찢고 찌개며 조각을 만든다.
- 1차시에 만든 간판을 예쁘게 채색해 준다.

흙안에 기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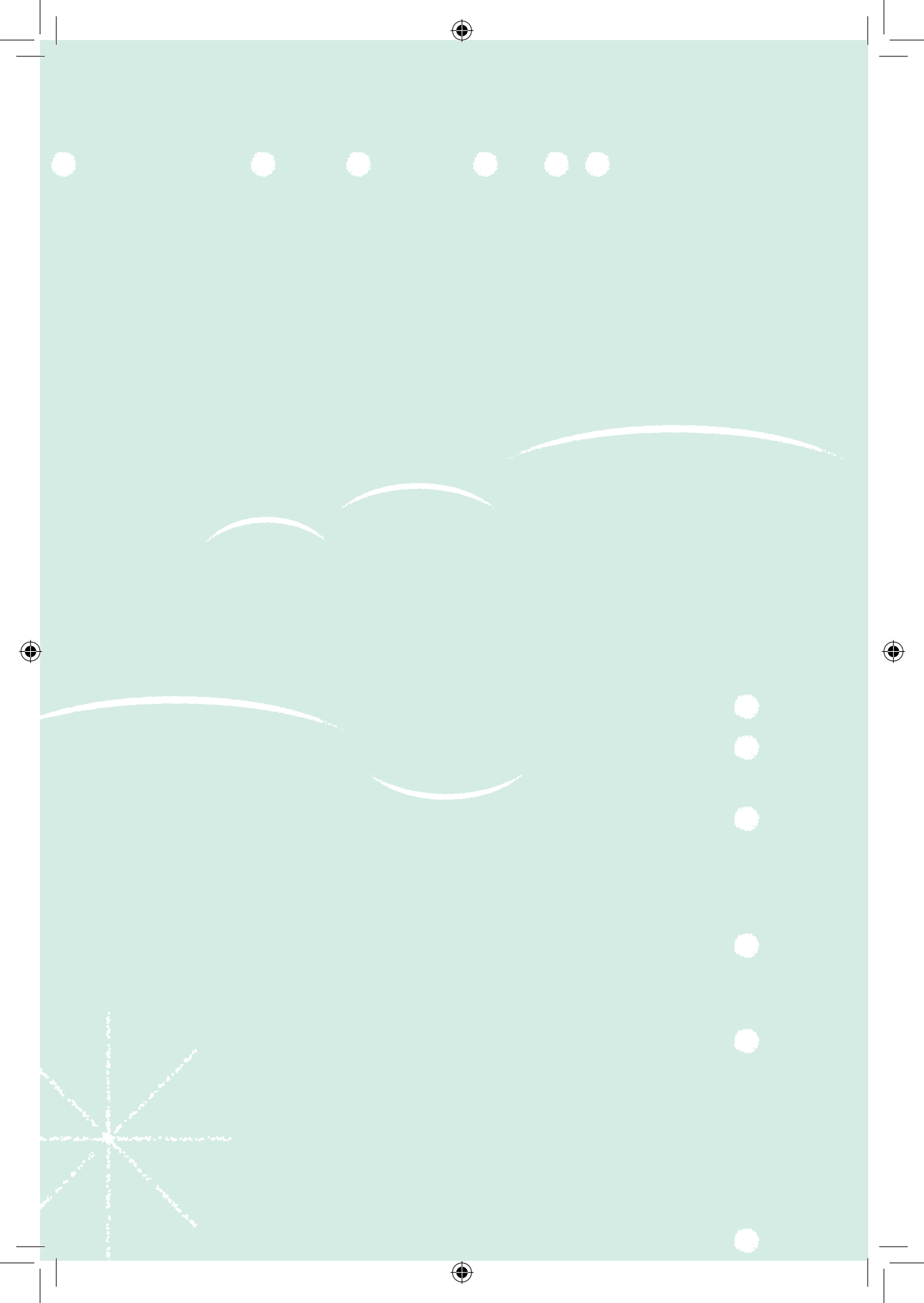


- 참여자 모두가 하나되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본다.
다함께 “어린이극장” 글자를 만들고 꾸며준다.
- 다양한 모양의 오브제를 꾸미고 채색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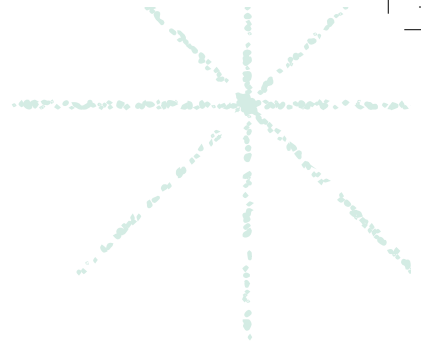
흙으로 완성하기



- 가족트리 조립 및 꾸미기.
소망이나 남기고 싶은 것들은 표현해 본다.
- 가족별 참여 소감을 말해본다



네 번의 만남. 그리고 기록 스케치.



11.27.토

첫 번째 만남.

12.04.토

두 번째 만남.

12.11.토

세 번째 만남.

12.18.토

네 번째 만남.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매우 편안한 느낌이 든다.”



아이들이 흙 자체를 자유롭게 만지는 것으로 흙과 친해지게 하였다.
아이들이 흙을 자유로이 만지는 동안 부모님들은 가족의 팀명을 만들기 시작했다.
로비 공간은 다소 웅한 느낌이 있어서 따로 배경음악이 없어 분위기가 다소 서먹하긴 했지만 선생님과 아이들의 친목시간이 이어지자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진다.



서너명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풀장 안으로 들어가 놀기 시작했다.
촉감 공유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보인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 매우 편안한 느낌이 든다.
아이들 각자 스스로의 방식으로 지점토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다양한 악기와 ‘칠교’라는 교구를 함께 사용한다.
칠교퍼즐을 자유롭게 쪼개어 다양한 모양을 만들고, 여러 방향에서 바라보면서 시각을 넓힌다. 이 때 아이 +부모가 한 조가 되어 각자가 만든 모양이 무엇일지 상상하여 말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서로에 대한 서먹함을 조금이나마 줄인다.
이어서 ‘아리랑 손치기’ 놀이가 진행되었다. 노래의 박자에 맞춰 상대방과 손뼉을 치는 놀이로 음악에는 박자와 행동이 함께 있음을 인지시켜 흥미를 유발한다. 음악을 잘 알지 못해도 박자를 탈 수 있어 부모님과 아이들이 모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 보인다.

12.4.토

두 번째 만남.



전 회차의 촉감 학습에서 인식했던 흙
가루 -> 물붓기-> 진흙 ->지점토의 재료를
상기시키면서 연결성을 부여했다.
도마위의 진흙재료를 이용해 크리스마스
장식모양을 만들었다.
뭍은 진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색깔을 칠한 뒤
놓아두면 굳으면서 얇은 점토가 되는데 이 작업을
여러 번을 반복하면서 두껍게 만든다.



“함께 만든 작품을 놓고
이야기 꽃을 피우는 모습들이
따뜻해보였다.”



이 과정이 조금 오래걸리고 아이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보이긴 하였으나 지난 주에 비해서는
집중도가 높아 보였다. 아이들에게 다소 생소한
교구를 사용할 때는 정해진 미션이 있는 편이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듯하다. 이 작품들은 모빌의
재료로 쓰인다.

세계 각국의 악기를 준비해 직접 만져보거나 다루게
한 다음, ‘악기 이름 빙고’게임을 했다. 타악기 ‘젬베’
를 라이온킹 OST에 맞추어 두드리고 박자에 맞추어
몸을 움직여보았다. 인디언 머리띠라는 소품을 직접
만들어서 쓰고 각자가 정글의 컨셉을 부여 받아, 참
여자들이 젬베 연주에 한층 더 몰입한다. 다양한 악
기와 놀이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음악교육의
층위가 다양해진 점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오롯이 무언가에 함께 집중하는 시간이 모두에게 의미있어 보인다.”

‘노원어린이극장’이라는 글자를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왔다. 꾸밈 찍기틀을 가지고 찍어낸 지점토로 이 글자를 장식하는 것이 오늘 수업이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지점토를 밀대로 밀어 도구틀로 찍어낸 모양점토를 글자에 붙인다. 꾸밈이 어렵지 않고 쉽게 아이들이 해낼 수 있는 미션으로 보였다. 색칠을 해 두니 시각적으로도 미려해 보인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 만듦이나 부모님들도 몰입하는 모습이 보인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훨씬 동기부여가 되는 듯 하다. 오롯이 무언가에 함께 집중하는 시간이 모두에게 의미있어 보인다.



갖고 싶은 것들, 혹은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오르골 용지에 그린다. 싸인펜등의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그림 위에 펀칭기로 구멍을 뚫는다. 내가 뚫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구멍을 뚫어서 오르골 기계에 넣어 돌리면 아름다운 소리로 바뀌어 나오는 원리이다.

모두 작업을 끝낸 후에 한 팀씩 무대 앞으로 나와 핸드폰 카메라로 연주를 녹화했는데, 녹화가 시작되면 떠들던 아이들도 모두 잡음이 들어가지 않게 숨죽여서 다른 아이나 부모님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어릴 적 흙을 가지고 놀던 기억이 어렴풋이 소환되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도자기 작품들을 선생님들이 모두 구워 왔다. 지난 시간 꾸렸던 ‘노원어린이극장’ 글씨를 채색하는 과정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함께 만든 작품을 놓고 이야기 꽃을 피우는 모습들이 따뜻해보였다.

어릴 적 흙을 가지고 놀던 기억이 어렴풋이 소환되었다. 놀이터의 모래, 산과 들의 흙을 만지며 자라던 나(박시호)의 어린시절과는 달리 21세기의



아이들은 우레탄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흙은 만질 기회가 없으며 소독된 모래카페에서 놀곤 한다. (그나마도 코로나로 만나기 어려워졌지만) 지점토, 찰흙은 자연의 흙에 가까운 미술재료로 아이들이 자연을 조금이나마 감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한다.

오르골 악보에 그린 참가자들의 그림과 이름, 그리고 큐알코드를 스크린에 띄우고 한명씩 미니콘서트를 하였다. 그리고 선생님은 옆에서 칼림바로 이 오르골 연주에 즉흥으로 반주를 하였다. 참가자들이 평소에 쉽사리 접해보지 못했을 다양한 악기들을 모두 준비한 단체의 정성이 대단하다. 그리고 악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데에 지나지 않고, 유래와 소재 등에 대해 알려준 것이 아이들이 악기의 연주에 더욱 더 몰입할 수 있게 되었다.



기록을 마치며

예술단체 '지구숨숨'을 운영하며
<요나이야기>라는 희곡을 하나 썼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림책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때마다 꼭 학부모들을
오시게 했다. 나의 아이가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며, 어떻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지 학부모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그 시간만큼은 쉬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함께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런 장면을 인상깊어 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반응들이 꽤 있었다.

이렇게 보호자가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자연스레 서로
간에 할 이야기가 풍성해진다. 팬데믹
이후 집에서 물리적인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내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무언가를 꾸며
보거나 만들어 볼 기회는 드문 가족단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노원어린이극장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처럼 부모님과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꾸려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한번 참여했던-아이들부터
어른을 아우르는 전 연령대의- 시민들이
어린이극장을 더욱 편안하게 느끼고
문턱없이 자주 드나들게 되지 않을까.
어린이 극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예술교육의 현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 4주간의 기록을
마친다.

교육과정 기록자 박시호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창작을 하는 유기농 콜렉티브 지구숨숨 대표.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등 환경을 주제로 하는 전시, 공연을
만들어 아이들과 환경을 잇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코로나 극복 힐링 프로그램]
2021 노원어린이극장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회고록

김정이

비커밍 콜렉티브 대표

ecooart@gmail.com

1.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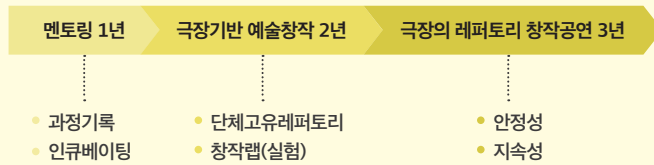
본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차원의 목적성을 띄고 있다. 첫번째는 노원어린이극장의 활용도를 다채롭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코로나블루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이다. 세 번째는 전문가 멘토링 지원과 3년 연속 지원을 계획하여 극장의 특수성을 살린 특성화된 교육 콘텐츠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공모하였다. 사업기간은 9월~12월로 불과 3~4개월이 주어졌다.

[그림] 노원어린이극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사업설계 구조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교육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을 기록하고 인큐베이팅하는 1년의 과정을 거쳐 2년, 3년 지속적으로 예술교육 단체를 지원·양성하는 체계 마련과 노원어린이극장의 고유한 배경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환경을 예술로 재해석하여 선정된 예술교육단체(또는 개인) 고유의 장르 레퍼토리와 결합될 수 있는지 여부의 가능성을 실험해 본 뒤 노원어린이극장의 창작지원 공연형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이 추진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최대 2팀 선정을 예정하였고, 2팀이 선정되었다.

[그림] 노원어린이극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단계별 운영 프로세스



2. 해석

3년 연속 지원하고자 한 행정의 태도가 파격적이다. 대부분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속한 단체들의 염원은 연속 지원이다. 연속 지원을 통해 단체의 성장과 역량강화를 통해 극장도 안정적인 지역의 레퍼토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호 긍정의 되먹임과 선순환의 과정을 상상하며 생태계적 관점이 적용된 행정기획이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직접적 지원에 해당한다면 인큐베이팅과 멘토링은 단체의 성장과 역량강화를 돕는 장기적 차원의 간접적인 행정지원에 해당한다.

인큐베이팅과 멘토링을 행정지원으로 포함한 것은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의 성장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정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제출된 기획안의 내용이 바로 현장에 적용되고 실행되기엔 콘텐츠의 고유성과 독자성, 완성도 면에서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앙문화행정과 광역문화행정은

행정관리의 영역이 광범위하기에 현장과의 접점면 또한 넓다. 그래서 성장과 장기적 관계 기반의 예술지원의 싹을 마련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로 일반공모의 형태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공정성 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반면 기초자치구 단위의 문화재단은 일반공모형 사업으로만 사업운동을 할 경우 중앙과 광역재단의 역할과 중복되거나 차별화된 행정을 펼치기 어렵다. 기초구 문화재단의 역할은 현장과의 교감을 강화하고 장기적 관계망을 구축하면서 관계중심의 문화행정을 펼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이러한 점에서 기획의 설정은 타당하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몇가지 지점이 있다. 일반공모에 있어 완제품을 요구하는 형태의 지원서 작성과 선정 이후 교육 및 멘토링 지원의 프로세스의 적정성을 고민해야 한다. 내 생각에는 완제품 형태의 기획서보다 단체나 개인 예술가들이 해온 예술활동과 극장에 대한

해석, 하고 싶은 활동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출하여 의지와 태도를 확인하고 그 중 방향성과 의지가 돋보이는 단체를 선정한 이후 일종의 프로그램 개발랩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선정된 단체, 재단의 행정총괄 및 기획자, 랩 전체를 슈퍼바이저 할 전문문화기획자로 랩 연구팀을 구성하여 한정된 기간동안 워크숍 운영을 통해 완성된 예술콘텐츠, 대표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본다.

랩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노원어린이극장의 특화된 레퍼토리로 설정하여 안정적인 계약관계를 통해 현장에서의 양적 실천을 통해 브랜드화 전략을 구현한다.

모두가 이득을 보게 되는 구조이다. 노원어린이예술극장은 안정화된 고유의 레퍼토리를 얻게 되고 -여기에서 레퍼토리라 함은 공연, 전시, 교육 모두를 의미한다- 단체는 고유의 예술콘텐츠를 전문가와 함께 개발, 운영함으로써 예술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노원시민은 좋은 예술콘텐츠에 대한 향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정리하자면 단체의 완성된 기획안을 제안받기 보다 지역 예술인 개별의 제안과

의지를 공모하고 일과 배움이 하나로 엮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행정과 운영의 가능성을 모색하길 희망한다.

올해 선정된 단체는 의지가 좋은 단체들이다. 다만 단체가 기존의 활동 스타일을 혁신하고 자체 프로그램의 형식을 새롭게 변화시키기엔 현저히 부족한 시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 점을 감안하고 보면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존의 활동 형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것이 전제된다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름 많이 애썼고, 그 노력과 정성이 느껴졌다. 전문가들의 기대는 늘 현장의 만족도보다 높다. 순수하게 현장의 만족도 수준으로 돌아가서 판단하면 두 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원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은 충분히 즐거워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활동의 위축과 우울감에 대한 위로를받고 돌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또 노원어린이예술극장의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크리스마스 선물같은 프로그램이었다.

이수연¹⁾

연극놀이 전문강사

isy0918@hanmail.net

<예술로 흔적남기기> 프로그램을 돌이켜보며, 예술교육이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노원어린이극장의 첫 발걸음을 바라봅니다.

참여자가 중심이 되는, 그들의 경험이 중심이 되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본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고 분주하게 진행되는 바쁜 일정이었음에도, 다양한 분야의 예술교육활동 전문가들께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애초의 계획과 달라진 점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으로 실행해보고자 했던 것에서, 두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이 극장 공간 안에서 통합될 수 있는 융복합의 개념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에는 ‘도전’과 ‘시도’라는 키워드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첫 프로그램이었음에도 과감히 도전과 시도를 선택한 것은 김병호 예술감독님, 김정이 멘토님의 탁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어린이극장이라는 공간적 특수성, 계속해서 성장, 변화, 발전을 도모하는 열린 대상을 위한 공간의 정체성도 한 몫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예라는 참신한 활동, 칼림바를 활용한 창의적 음악활동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팀의 강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극장에서 제안하는 방향과 의도를 이해하고 수용해주셨습니다. 해오시던 익숙한 방식의 예술교육이 아니어서 혼란과 복잡함,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시도를 기꺼이 받아들여 융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수정, 개발해주셨습니다.

1) 연극놀이 전문강사로 어린이 청소년들과 연극수업 및 연극만들기, 시민연극, 교사연수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공연 및 예술교육프로그램에서 교육감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어린이극장 <예술로 흔적남기기> 프로그램에서는 멘토로 심사 및 멘토링, 모니터링을 담당했습니다.

매주 멘토들이 참여하지 못하기에 세세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지점들과 본 프로그램의 전체 맥락구성을 송재영 연출님이 잘 일궈주셨고, 나아가 극장공간과의 연계성에 대해 미술감독님과 상의하시며 애써주셨습니다. 교육활동을 극장공간에서 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충돌이 많았을 텐데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해주신 김보영 주임님의 진심어린 수고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이 모든 분들의 역할과 노력이 모여져 좋은 예술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고,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연극극장임에도 연극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극장이니 당연히 연극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한다는 진부하고 고정된 시각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극공연이 꾸준히 상연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서의 극장과 연계되는 프로그램, 극장공간을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극장의 주체로서 공연관람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며, 가까운 동네 극장을 또 하나의 아지트처럼 편하고 재밌게 상상하며 이용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결국 어린이극장은 그들을 위한 공간이니까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가족들을 보며 이 어려운 시기, 조심과 의심, 경계가 만연한 시기에도 예술창작과 경험을 즐기시는 모습에 다시금 우리가 시도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원 지역의 시민들과 아이들의 예술활동에 대한 열망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방향의 시도를 다채롭게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술을 보다 가까이 즐겁게 경험하기, 나의 일상 속에서 생성되고 발견되는 창조적 에너지를 경험하기, 그러한 맥락의 예술교육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분절된 활동, 결과 중심적 작업으로서의 예술교육이 아닌, 커다란 맥락을 이어갈 수 있는 과정 중심적 경험으로서의 예술교육이 자리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병호

어린이극장 예술감독

kimbhoo@hanmail.net

노원어린이극장 예술감독으로 제안했던 공연장운영 계획은 향후 5년 이후에는 상설공연장으로 운영되고 궁극적으로 제작극장을 꿈꾸는 것이다. 기획공연, 예술축제, 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연장이 지역사회 전반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희망을 제시하는 감성놀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해 이루어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을 경험하고 있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공연장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역경에 빠진 지역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위축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공모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공모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예술가와 예술단체로 한정하였고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되 전문가 컨설팅과정을 통하여 융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전제 하였다. 컨설팅에 참여해줄 멘토는 심사과정부터 함께 하는 것으로 정하고 진행과정 전반을 함께 하였다. 최종선정 된 두 개 단체는 연출가를 참여시켜 상호작용과 공연장 레퍼토리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지금 모든 지원 사업들이 일회성에 머물고 있어 예술 활동의 지속가능성이 불안정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예술교육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하여 최소 3개년 계획으로 2년차 3년차 지속성을 가지고 레퍼토리아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공연과 전시형태로 융합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의 한계가 있지만 공연장로비와 1층 광장, 4층 상상이룸센터, 인접지역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상계예술마당 등과 연계하고 향후에는 어린이도서관과 아동복지관,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전반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공공극장의 사회적 역할까지 확장해 가고자 한다.

공연장서비스는 정형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관객과 교감하고 환대하는 서비스여야 한다. 공연장은 공감과 감성적 관계망을 만든다. 노원어린이극장은 감성놀이터로서 삶의 질과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개관이후 모든 기획공연을 빠짐없이 관람하는 가족관객들이 있다. 이 건강한 문화소비가 우리사회전반에 전파되기를 바란다. 기쁘게 소비하는 문화! 노원어린이극장은 아이들의 눈높이로 어른의 동심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노원어린이극장은 희망의 싹을 키우는 예술터밭 감성놀이터로 자리잡아갈 것이다.

송재영²⁾

예술로 흔적남기기 연출

beatzmetapo@naver.com

서울시 노원구에 어린이들을 위한 극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극장을 ‘노원어린이극장’이라고 부릅니다. ‘노원어린이극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특별한 장소에서 어린이들이 공연을 보는 것 외에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까하는 질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오랫동안 머리를 맞댄 끝에 탄생한 ‘예술로 흔적남기기’는 올해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예술로 흔적남기기’는 ‘도예’와 ‘칼림바’를 다루는 두 명의 예술가가 가족 단위의 참여자들과 만나 독특한 예술세계를 함께 만드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예술가와 참여자 모두 노원구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활동이기 때문이지요.

추위와 눈보라를 뚫고 빨개진 볼로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어린이, 악보에 직접 음을 입히고 칼림바로 멋진 연주를 관객에게 선보이는 어린이, 이들을 따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응원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마주하는 일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서 많은 걱정이 되는 시기였지만 참여자 모두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자신만의 예술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 번, ‘예술로 흔적남기기’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자리한 특별한 곳, ‘노원어린이극장’에서 ‘나’답게, ‘우리’다운 모습을 새기고 간 어린이들의 모습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예술이니까요.

2) 아동청소년극을 쓰고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좋은 공연은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예술가들이 모인 ‘조각바람프로젝트’의 동인입니다. ‘예술로 흔적남기기’에 구성 및 연출로 참여했어요.

김보영

어린이극장 담당자

kby308@nowonarts.kr

늘 예술교육이 진행되기 전에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예술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찰나의 시간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뭐든 그렇겠지만.)
참여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벼운 발걸음으로 극장에 들어오고 기대에 들뜬 눈으로
수업을 기다리는 모습부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자기들만의 언어로 복닥복닥 즐기는
모습을 보면 예술교육이 진행되기 전 켜켜이 누적되었던 노곤함이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비타민으로 처치되는 느낌이다. 예술교육 감상자(예술교육 담당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감각이라 생각한다.

‘예술로 흔적남기기’가 실행되기까지 과정이 참혹했다. (코로나19로 미루어졌던
탓에 하반기에 시작)시간은 제한적이고, 공모사업으로 지역예술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지역극장을 다각도로 활용하여 ‘코로나 블루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의 미션을 풀어야 했다. 지역에 대한 리터러시를 참여자들과 극장에
심어보는 것이 공통된 의견으로 나와 최종 선정된 두 명의 대표기획자·강사 선생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멘토님, 연출님의 조력으로 ‘예술로 흔적남기기’가 실행되었다. 그렇게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공모심사, 멘토 프로그램, 프로그램 기획,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실행이 무사히 마무리 되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2020년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한 말이다. 가끔 그 의미를 잘근잘근 씹어볼수록 너무나
매력적이다. 개인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이 훗날 개인의 역사가 되고 창조적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감각을 열고, 감정을 느끼고, 경험을 새기는 일.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어려운일인지 모른다. 훈련이 아니기 때문이다. 펼쳐진 상황에서 내가 가진 감각과
경험들을 마주하며 즐기면 된다. 진심을 가지고 말이다. 어디서? ‘노원어린이극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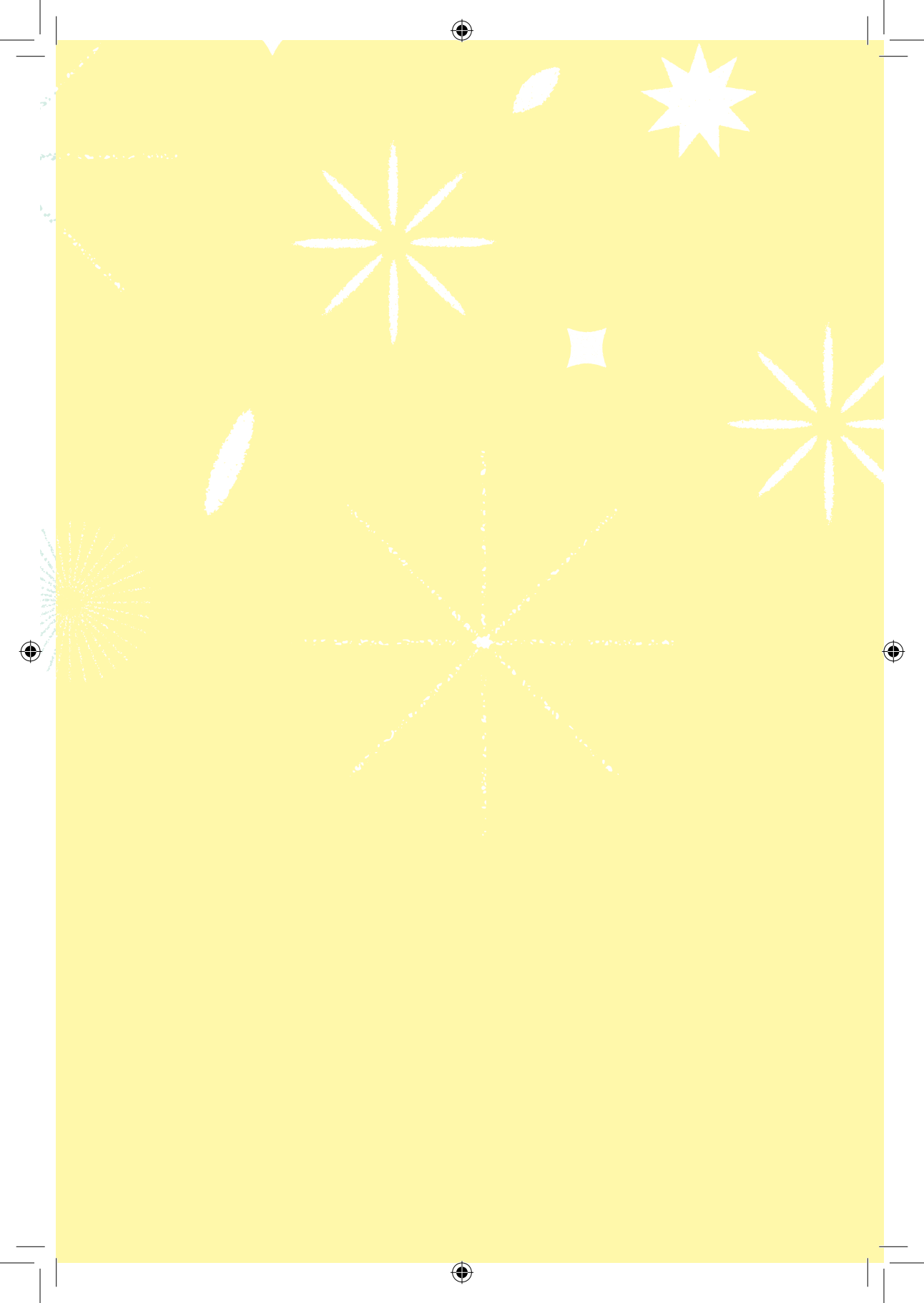
운영기관 소개

노원어린이극장

2020년 10월 30일, 노원어린이극장은 기존 노원어울림극장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전용극장으로 새롭게 특화시켰습니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 가족을 위한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가족중심 극장, 예술적 감수성이 성장하는 극장, 서울 동북권을 아우르는 어린이 대표 공연장으로 우뚝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원어린이극장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공연예술 감상만이 아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원어린이극장의 고유한 배경을 기반으로 예술로 재해석해 보는 예술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여 극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으로써의 예술교육을 시행합니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연대와 소통을 연결하는 문화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이 가꾸고 보존하는 지역예술극장이 되도록 힘씁니다.

노원어린이극장에서는 가족이 함께 경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를 기획·개발하여 모든 이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술로 흔적남기기 2021

기간	2021년 9월~ 12월
장소	노원어린이극장
주최	노원문화재단(대표 김승국)
후원	노원구청
예술감독	김병호
기획·운영	김보영, 김예지
멘토	김정이, 이수연
연출	송재영
기록	박시호
촬영	조수찬
미술감독	모은미
홍보물 디자인	최현주